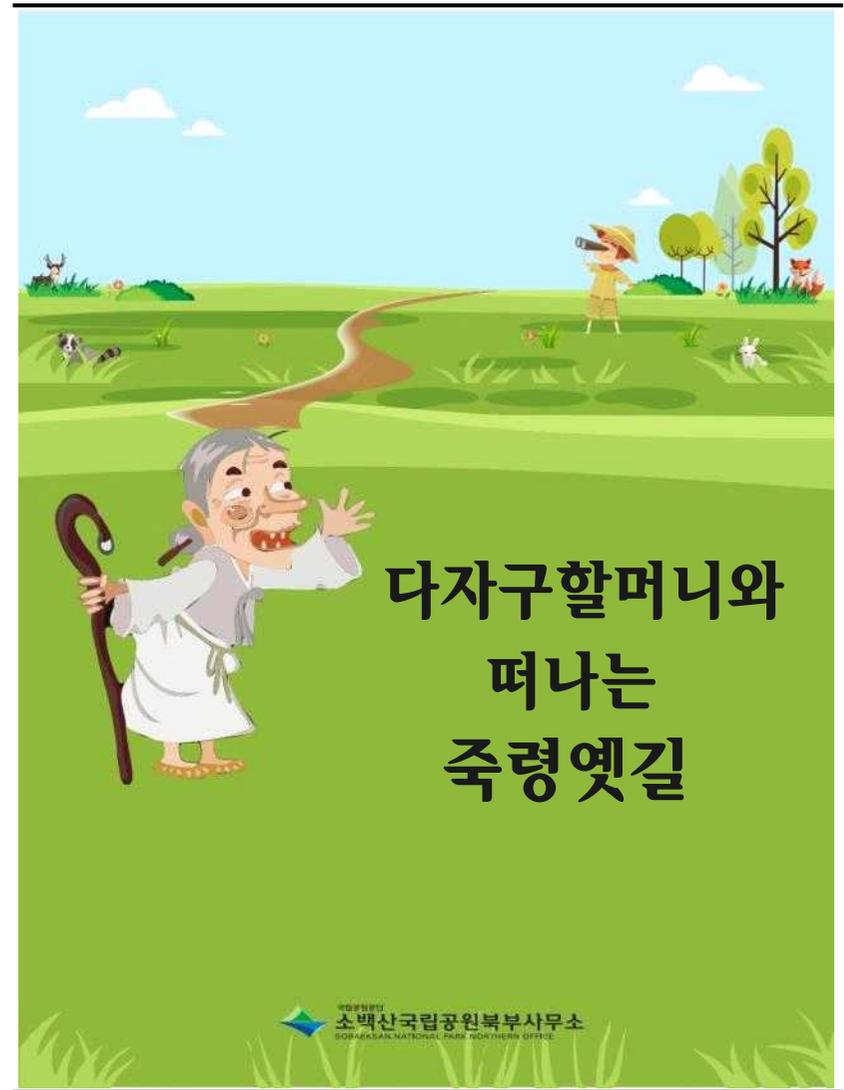




**다자구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



**다자구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

---

---

---

---

---

## 목차

- 1, 소백산 소개
- 2, 소백산국립공원 깃대종
- 3, 소백산 지도
- 4, 소백산 주요탐방로
- 5, 죽령 소개
- 6, 죽령의 설화
- 7, 죽령옛고개명품마을
- 8, 습지이야기
- 9, 죽령습지
- 10, 죽령옛길 안내
- 11, 습지에 사는 식물
- 12, 죽령습지를 대표하는 동물
- 13, 낱말찾기 게임
- 14, 관찰일지
- 15, 탐방프로그램 안내

---

## 목차

- 1, 소백산 소개
- 2, 소백산국립공원 깃대종
- 3, 소백산 지도
- 4, 소백산 주요탐방로
- 5, 죽령 소개
- 6, 죽령의 설화
- 7, 죽령옛고개명품마을
- 8, 습지이야기
- 9, 죽령습지
- 10, 죽령옛길 안내
- 11, 습지에 사는 식물
- 12, 죽령습지를 대표하는 동물
- 13, 낱말찾기 게임
- 14, 관찰일지
- 15, 탐방프로그램 안내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년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22,011km<sup>2</sup>로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중 네 번째로 넓다. 해발 1439.5m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국망봉(1,420m), 연화봉(1,383m), 도솔봉(1,314m) 등이 백두대간 마루금 상에 솟아 있다. 퇴계 이황이 “울긋불긋한 것이 꼭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왕림한 기분”이라며 소백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처럼 수많은 탐방객이 아름다운 철쭉을 만나기 위해 봄철 소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겨울이면 장중한 백두대간 위에 설화가 만발하는 절경을 이룬다.



소백산국립공원은 1987년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322,011km<sup>2</sup>로 지리산, 설악산, 오대산에 이어 산악형 국립공원 중 네 번째로 넓다. 해발 1439.5m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국망봉(1,420m), 연화봉(1,383m), 도솔봉(1,314m) 등이 백두대간 마루금 상에 솟아 있다. 퇴계 이황이 “울긋불긋한 것이 꼭 비단 장막 속을 거니는 것 같고 호사스러운 잔치 자리에 왕림한 기분”이라며 소백산 철쭉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처럼 수많은 탐방객이 아름다운 철쭉을 만나기 위해 봄철 소백산국립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겨울이면 장중한 백두대간 위에 설화가 만발하는 절경을 이룬다.

### 여우(Vulpes vulpes peculiosa)

개과의 포유류로 과거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 인가 인근 숲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나 남획과 쥐잡기운동에 의한 약재 피해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지리산 모데미골에서 처음 발견되어 모데미풀이라 부르며 운봉금매화, 금매화아재비라고도 부르며 소백산에 최대군락지가 있다.

###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말한다.

### 여우(Vulpes vulpes peculiosa)

개과의 포유류로 과거 우리나라 전국의 산림, 인가 인근 숲 등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었으나 남획과 쥐잡기운동에 의한 약재 피해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모데미풀(Megaleranthis saniculifo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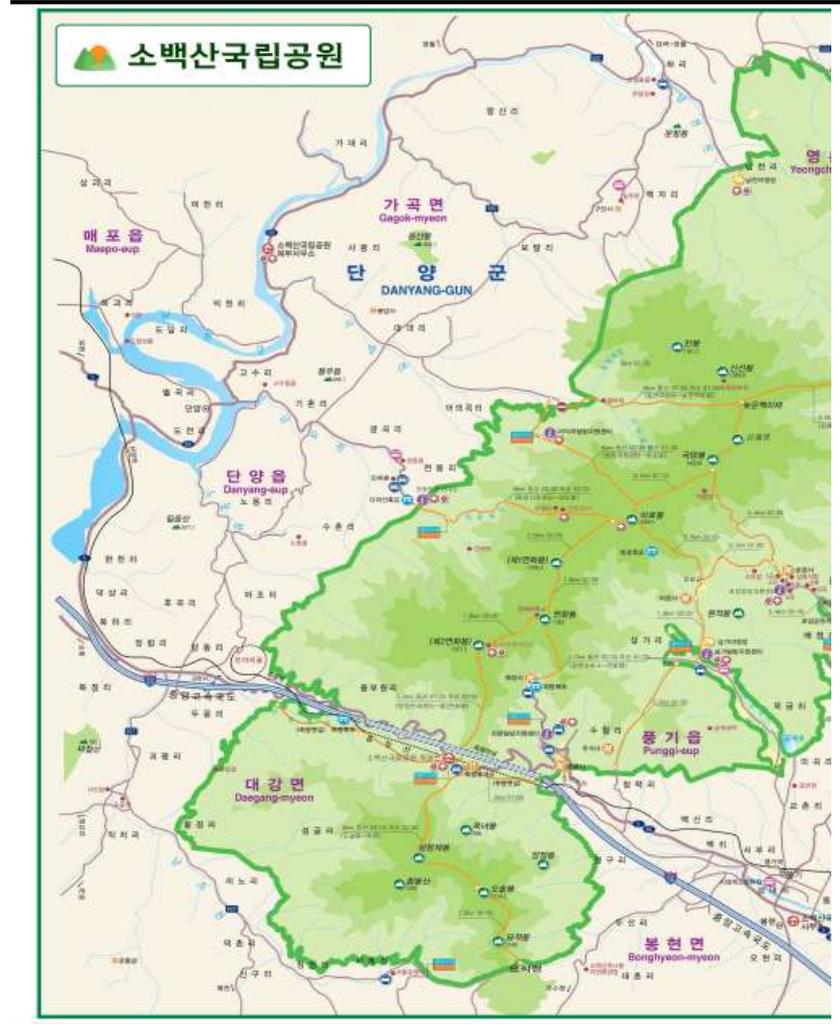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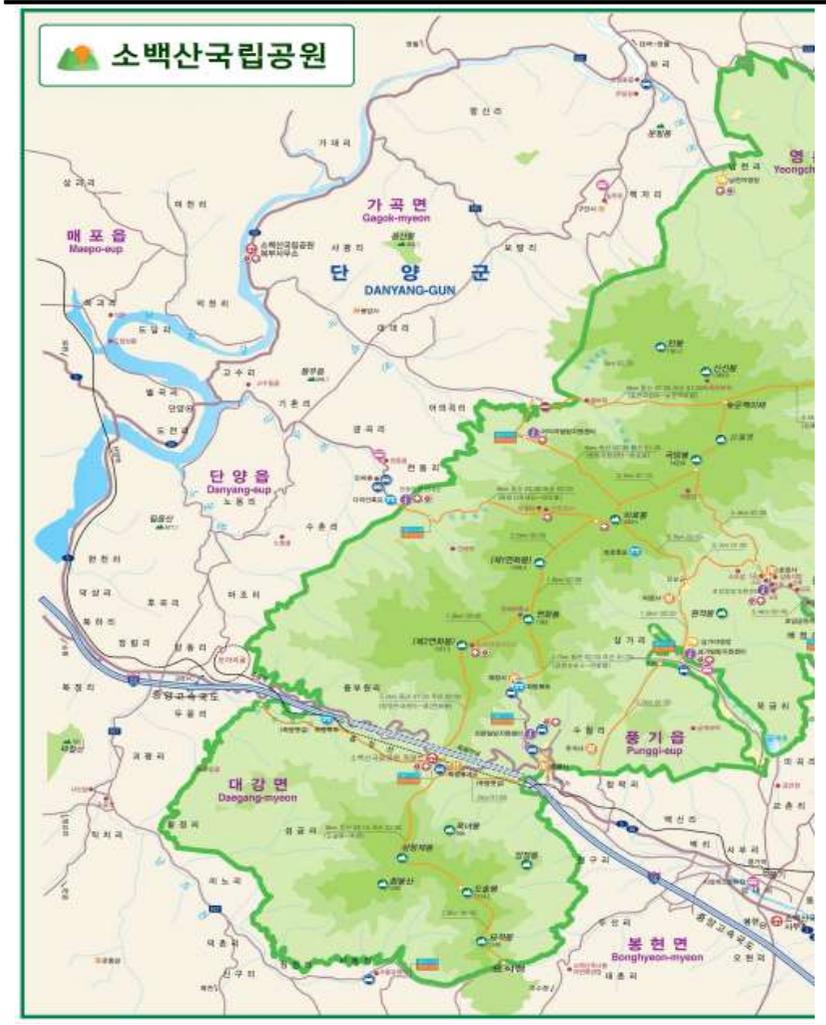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지리산 모데미골에서 처음 발견되어 모데미풀이라 부르며 운봉금매화, 금매화아재비라고도 부르며 소백산에 최대군락지가 있다.

###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서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을 말한다.

소백산 지도

소백산 지도





**초암사 코스(7.8km, 3시간40분)**

배점주차장-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봉두암-국망봉

**삼가동 코스(5.5km, 2시간40분)**

삼가탐방지원센터-달밭골 입구-양반바위-비로봉

**희방사 코스(3.7km, 2시간)**

희방탐방지원센터-희방사-갈딱고개 정상-연화봉

**죽령 코스(11.3km, 4시간45분)**

죽령탐방지원센터-제2연화봉-연화봉-제1연화봉-비로봉

**어의곡 코스(5.1km, 2시간40분)**

어의곡탐방지원센터-어의곡 삼거리-비로봉

**천동 코스(6.8km, 3시간)**

천동탐방지원센터-천동쉼터-천동 삼거리-비로봉

**도솔봉 코스(9.9km, 5시간30분)**

죽령-도솔봉-묘적봉-묘적령

**죽령옛길(죽령~음지마을 5.6km, 1시간30분)**

- 문의 -

단양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043-423-0708

영주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054-630-0700

※ 시간 및 거리는 편도이며 소요시간은 초급자 기준.

**초암사 코스(7.8km, 3시간40분)**

배점주차장-초암탐방지원센터-초암사-봉두암-국망봉

**삼가동 코스(5.5km, 2시간40분)**

삼가탐방지원센터-달밭골 입구-양반바위-비로봉

**희방사 코스(3.7km, 2시간)**

희방탐방지원센터-희방사-갈딱고개 정상-연화봉

**죽령 코스(11.3km, 4시간45분)**

죽령탐방지원센터-제2연화봉-연화봉-제1연화봉-비로봉

**어의곡 코스(5.1km, 2시간40분)**

어의곡탐방지원센터-어의곡 삼거리-비로봉

**천동 코스(6.8km, 3시간)**

천동탐방지원센터-천동쉼터-천동 삼거리-비로봉

**도솔봉 코스(9.9km, 5시간30분)**

죽령-도솔봉-묘적봉-묘적령

**죽령옛길(죽령~음지마을 5.6km, 1시간30분)**

- 문의 -

단양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043-423-0708

영주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054-630-0700

※ 시간 및 거리는 편도이며 소요시간은 초급자 기준.

### 죽령(竹嶺)

죽령은 남쪽의 풍기와 북쪽의 단양을 가로지르는 고갯마루로 동북은 강원도, 북서는 충청도, 남쪽은 경북으로 삼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백산의 허리이다. 『삼국사기』에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린다.”라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라왕 5년에 죽죽(竹竹)이 죽령을 개척하고 지쳐서 순사했고, 고갯마루에는 죽죽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애환이 서려있는 죽령은 삼국시대 한동안 고구려의 국경으로 신라와 대치하는 등, 삼국의 군사가 뒤엉켜 치고 쫓기는, 불꽃 튀는 격전의 장이었다.



### 죽령(竹嶺)

죽령은 남쪽의 풍기와 북쪽의 단양을 가로지르는 고갯마루로 동북은 강원도, 북서는 충청도, 남쪽은 경북으로 삼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소백산의 허리이다. 『삼국사기』에 “아달라왕 5년(서기 158년) 3월에 비로소 죽령길이 열린다.”라 기록되어 있고, 『동국여지승람』에는 “아달라왕 5년에 죽죽(竹竹)이 죽령을 개척하고 지쳐서 순사했고, 고갯마루에는 죽죽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애환이 서려있는 죽령은 삼국시대 한동안 고구려의 국경으로 신라와 대치하는 등, 삼국의 군사가 뒤엉켜 치고 쫓기는, 불꽃 튀는 격전의 장이었다.



다자구 할머니 이야기

한양과 영남을 잇는 중요한 길 이었던 죽령은 행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만큼 죽령 고개에 숨어사는 도적 또한 많았습니 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도적떼로 고을 수령과 마을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도적떼 잡기를 자청합니다. 할머니가 도적떼 소굴에 들어가서 도적들이 모두 자고 있으면 "다자구야", 도적들이 안자고 있으면 "들자구야" 를 암호로 정하고, 산으로 들어가 매일 "다자구야, 들자구야" 를 노래 삼아 불렀 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어 모두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자구야, 다자구야" 를 외쳐 관군이 도적떼를 일망타진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할머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죽령산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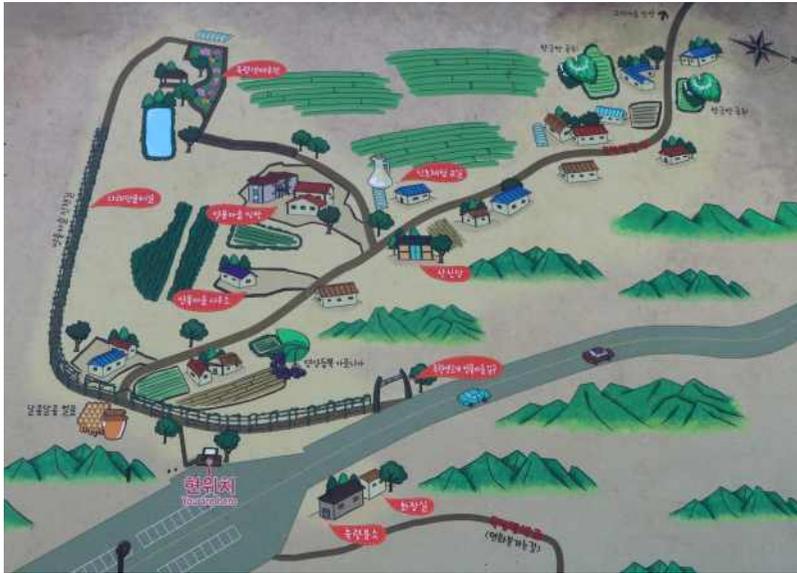
다자구 할머니 이야기

한양과 영남을 잇는 중요한 길 이었던 죽령은 행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만큼 죽령 고개에 숨어사는 도적 또한 많았습니 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도적떼로 고을 수령과 마을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도적떼 잡기를 자청합니다. 할머니가 도적떼 소굴에 들어가서 도적들이 모두 자고 있으면 "다자구야", 도적들이 안자고 있으면 "들자구야" 를 암호로 정하고, 산으로 들어가 매일 "다자구야, 들자구야" 를 노래 삼아 불렀 습니다. 시간이 흘러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 되어 모두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할머니가 "다자구야, 다자구야" 를 외쳐 관군이 도적떼를 일망타진하였다고 합니다. 그후 할머니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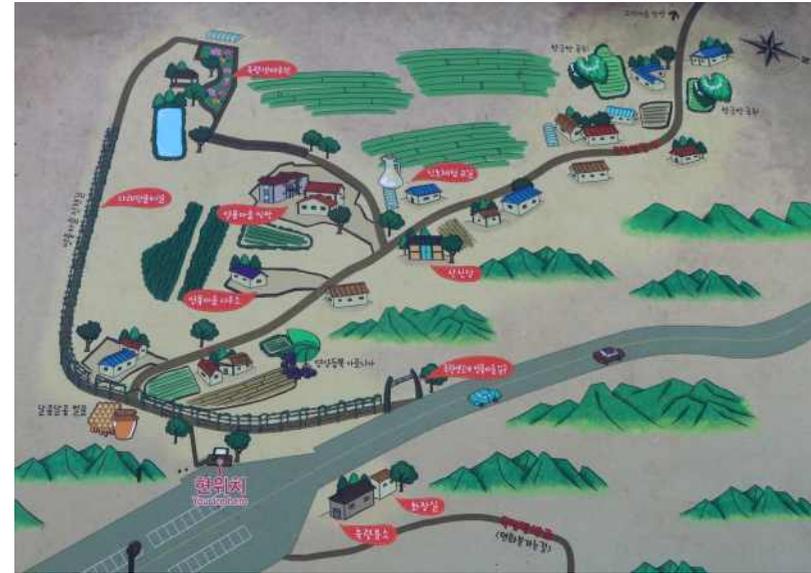
죽령산신당

버들밭마을의 유래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군수품에 사용할 양과 염소의 털과 우유를 얻기 위해 조성된 목장으로 사용하다 폐지되었다. 이후 1939년 충북도립 목양장으로 개설하였으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교통 불편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폐쇄하자 화전민들이 입주해 마을을 이루었다. 고산습지에 버들이 서식하였다 해서 '버들밭마을'로 불리었고, 2012년 9번째 국립공원명품마을로 지정되었다.

버들밭마을의 유래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군수품에 사용할 양과 염소의 털과 우유를 얻기 위해 조성된 목장으로 사용하다 폐지되었다. 이후 1939년 충북도립 목양장으로 개설하였으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교통 불편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폐쇄하자 화전민들이 입주해 마을을 이루었다. 고산습지에 버들이 서식하였다 해서 '버들밭마을'로 불리었고, 2012년 9번째 국립공원명품마을로 지정되었다.

### 습지(濕地)란?

습지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물이 차 있는 땅을 말한다. 모든 생물의 원천인 물을 머금고 있는 습지는 오염물질을 수용하고 정화하며,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해 갑자기 큰비가 내려 하천이나 계곡이 범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막아준다. 또 빗물을 저장해 지하수를 재충전하고, 무엇보다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준다.

습지는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나 거북, 수달, 물개, 물새와 같은 다양한 동물이 의존해 살아가는 서식지이다.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생태계의 보물이다.



### 습지(濕地)란?

습지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물이 차 있는 땅을 말한다. 모든 생물의 원천인 물을 머금고 있는 습지는 오염물질을 수용하고 정화하며,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탁월해 갑자기 큰비가 내려 하천이나 계곡이 범람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막아준다. 또 빗물을 저장해 지하수를 재충전하고, 무엇보다 온실효과를 가중시키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 준다.

습지는 개구리, 두꺼비와 같은 양서류나 거북, 수달, 물개, 물새와 같은 다양한 동물이 의존해 살아가는 서식지이다.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한 생태계의 보물이다.





죽령에 습지가 있다?

죽령에 습지가 있다?



죽령습지는 내륙습지 중 고산습지에 해당된다. 고산습지는 매우 강한 산성이며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탄층을 형성한다. 이탄층(泥炭層)이란 죽은 식물이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만들어진 암갈색 토양층으로, 죽령습지에는 그리 깊지는 않지만 이탄층이 있다. 오랜 세월 썩지 않고 남아 있는 이탄층을 통해 수백 년 전 생물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지역의 기후와 식생의 변화를 알 수 있어 이탄층을 타임캡슐이라 부르기도 한다.

죽령습지는 내륙습지 중 고산습지에 해당된다. 고산습지는 매우 강한 산성이며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탄층을 형성한다. 이탄층(泥炭層)이란 죽은 식물이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여 만들어진 암갈색 토양층으로, 죽령습지에는 그리 깊지는 않지만 이탄층이 있다. 오랜 세월 썩지 않고 남아 있는 이탄층을 통해 수백 년 전 생물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지역의 기후와 식생의 변화를 알 수 있어 이탄층을 타임캡슐이라 부르기도 한다.

### 죽령옛길의 복원



1999년 영주 지역 주정골에서 죽령까지 이어지는 옛길 2.0km가 조성되어, 2007년 12월 국가지정 명승 제30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단양 지역으로 이어진 길이 복원되었다. 죽령과 음지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은 전체 5.6km로 죽령에서 소야마을까지는 마을길 및 농로 2.7km이고, 소야마을부터 2.9km 구간은 숲을 따라 음지마을까지 길이 이어진다. 낙엽송으로 우거진 데크길을 걷다보면 숨겨진 단양의 비경 "죽령폭포"도 만날 수 있다.



### 죽령옛길의 복원



1999년 영주 지역 주정골에서 죽령까지 이어지는 옛길 2.0km가 조성되어, 2007년 12월 국가지정 명승 제30호로 지정되었고, 2018년 단양 지역으로 이어진 길이 복원되었다. 죽령과 음지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은 전체 5.6km로 죽령에서 소야마을까지는 마을길 및 농로 2.7km이고, 소야마을부터 2.9km 구간은 숲을 따라 음지마을까지 길이 이어진다. 낙엽송으로 우거진 데크길을 걷다 보면 숨겨진 단양의 비경 "죽령폭포"도 만날 수 있다.



**키버들(Salix koriyanagi, 버드나무과)**

키버들은 다른 식물보다 이른 봄에 꽃을 피워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나무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하천 주변이나 들판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키' 는 이 나무껍질로 곡식의 불순물을 거르는 데 쓰는 도구인 '키' 를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전한다. 키버들은 줄기를 베어내면 새로운 줄기가 자라는 강인한 나무다.



**키버들(Salix koriyanagi, 버드나무과)**

키버들은 다른 식물보다 이른 봄에 꽃을 피워 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나무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하천 주변이나 들판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다. '키' 는 이 나무껍질로 곡식의 불순물을 거르는 데 쓰는 도구인 '키' 를 만들었다 하여 붙여진 것으로 전한다. 키버들은 줄기를 베어내면 새로운 줄기가 자라는 강인한 나무다.



**사방오리(Alnus firma, 자작나무과)**



자작나무과인 사방오리는 일본이 원산지로 사방 조림용으로 심은 나무라서 모래를 막는다는 '사방(沙防)'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조림용 나무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사방오리가 바로 그러하다. 사방오리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생해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거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기특한 나무이다.

**사방오리(Alnus firma, 자작나무과)**



자작나무과인 사방오리는 일본이 원산지로 사방 조림용으로 심은 나무라서 모래를 막는다는 '사방(沙防)'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조림용 나무라 척박한 환경에서도 빠르게 자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사방오리가 바로 그러하다. 사방오리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공생해서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거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기특한 나무이다.



**고마리(Persicaria thunbergii, 마디풀과)**

물가에서 사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보통 무리지어 자란다, 고마리가 물을 정화해주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꽃은 흰색,

분홍색 또는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색깔이 있다, 앙증맞은 꽃에 비해 제법 큰 잎은 서양의 방패를 닮은 맵시 있는 모습이다, 농촌의 도랑이 시멘트로 포장되고 제초제 등의 농약 사용으로 고마리의 서식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련(Nymphaea tetragona, 수련과)**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부엽성 수생식물로 밤이 되면 꽃잎을 닫아 '잠잘 수(睡)', '연꽃 연(蓮)' 수련이라고 한다, 물에 잠긴 뿌리에서 나온 잎이 수면으로 올라오며 6~8월에 긴 꽃자루 끝에서 꽃이 핀다, 잎과 꽃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연꽃과 달리 수련 꽃은 수면에 살짝 떠 있고 잎은 물 위에 등등 떠 있다, 잎은 말밭굽처럼 한쪽이 깊이 갈라져 있다, 연꽃보다 꽃이 작고 색깔과 형태도 다양하다,



**고마리(Persicaria thunbergii, 마디풀과)**

물가에서 사는 덩굴성 한해살이풀로 보통 무리지어 자란다, 고마리가 물을 정화해주기 때문에 '더러운 물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풀'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꽃은 흰색, 분홍색 또는 흰색과 분홍색이 섞인 색깔이 있다, 앙증맞은 꽃에 비해 제법 큰 잎은 서양의 방패를 닮은 맵시 있는 모습이다, 농촌의 도랑이 시멘트로 포장되고 제초제 등의 농약 사용으로 고마리의 서식지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수련(Nymphaea tetragona, 수련과)**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부엽성 수생식물로 밤이 되면 꽃잎을 닫아 '잠잘 수(睡)', '연꽃 연(蓮)' 수련이라고 한다, 물에 잠긴 뿌리에서 나온 잎이 수면으로 올라오며 6~8월에 긴 꽃자루 끝에서 꽃이 핀다, 잎과 꽃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연꽃과 달리 수련 꽃은 수면에 살짝 떠 있고 잎은 물 위에 등등 떠 있다, 잎은 말밭굽처럼 한쪽이 깊이 갈라져 있다, 연꽃보다 꽃이 작고 색깔과 형태도 다양하다,



###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 화본과)

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물억새는 보통 습지에 무리지어 자란다, 걸썩질에 까락이 없고 억새에 비해 잔털이 길어 꽃차례가 전체적으로 희게 보인다, 억새는 바람이 많고 건조한 산 위에서 자라며 꽃이 금색을 띠는 반면 물억새는 물가에서 자라며 꽃이 은색을 띤다, 만져보면 억새보다 부드러워서 소먹이로 많이 쓰였다.



### 물억새(Miscanthus sacchariflorus, 화본과)

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물억새는 보통 습지에 무리지어 자란다, 걸썩질에 까락이 없고 억새에 비해 잔털이 길어 꽃차례가 전체적으로 희게 보인다, 억새는 바람이 많고 건조한 산 위에서 자라며 꽃이 금색을 띠는 반면 물억새는 물가에서 자라며 꽃이 은색을 띤다, 만져보면 억새보다 부드러워서 소먹이로 많이 쓰였다.



### 물봉선(Impatiens textori, 붕선화과)



8~9월 무렵 계곡이나 골짜기의 축축한 곳에서 자라는 꽃으로 보라색 꽃이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앞쪽은 꽃잎이 활짝 벌어져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다 갈매기가 도르르 말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꿀주머니다, 꽃잎

입구에 선명한 색깔의 점이 흩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꿀이 있다는 꿀샘 안내 표지판이고 씨앗이 여물면 손만 대도 폭발하듯이 튀어 날아간다.

### 물봉선(Impatiens textori, 붕선화과)



8~9월 무렵 계곡이나 골짜기의 축축한 곳에서 자라는 꽃으로 보라색 꽃이 줄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앞쪽은 꽃잎이 활짝 벌어져 있지만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좁아지다 갈매기가 도르르 말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꿀주머니다, 꽃잎 입구에 선명한 색깔의 점이 흩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꿀이 있다는 꿀샘 안내 표지판이고 씨앗이 여물면 손만 대도 폭발하듯이 튀어 날아간다.

###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 개구리과)



북방산개구리는 이곳 죽령을 대표하는 동물로 몸길이가 5cm가 넘어 산개구리 중 가장 크다. 수컷은 턱 아래에 울음주머니가 한 쌍 있지만 암컷은 없다. 2~4월 사이에 번식하며 물 흐름이 적은 웅덩이나 습지에서

산란하며 10월이면 물 흐름이 적고 수심이 깊은 곳의 돌이나 바위 밑에서 겨울잠을 잔다. 작은 곤충이나 지렁이 등을 먹으며 자연 상태에서 수명은 7~8년 정도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 가까이 주택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이동하는 개구리들이 대량으로 로드킬을 당하는 사태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1980년 이후 122종의 양서류가 멸종되었으며 지금은 전체 양서류 가운데 3분의 1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 북방산개구리(Rana dybowskii, 개구리과)



북방산개구리는 이곳 죽령을 대표하는 동물로 몸길이가 5cm가 넘어 산개구리 중 가장 크다. 수컷은 턱 아래에 울음주머니가 한 쌍 있지만 암컷은 없다. 2~4월 사이에 번식하며 물 흐름이 적은 웅덩이나

습지에서 산란하며 10월이면 물 흐름이 적고 수심이 깊은 곳의 돌이나 바위 밑에서 겨울잠을 잔다. 작은 곤충이나 지렁이 등을 먹으며 자연 상태에서 수명은 7~8년 정도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산 가까이 주택과 도로가 건설되면서 이동하는 개구리들이 대량으로 로드킬을 당하는 사태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1980년 이후 122종의 양서류가 멸종되었으며 지금은 전체 양서류 가운데 3분의 1이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다.



습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쑥	선	장	람	사	르	협	약	평	겸
생	태	사	진	작	가	삼	날	사	은
밀	맛	수	질	감	시	원	도	마	머
물	어	민	통	통	마	디	래	귀	리
썰	린	습	지	환	경	운	동	가	물
물	이	지	석	경	도	룡	농	해	매
다	물	센	호	공	큰	고	니	양	새
이	자	터	농	무	메	뚜	기	학	수
버	라	교	부	원	조	류	학	자	련
수	의	사	습	지	보	전	법	백	로

찾을 단어

선장, 어민, 수질감시원, 다이버, 해양학자, 습지환경운동가,  
어린이, 수의사, 조류학자, 생태사진작가, 습지센터교사,  
환경공무원, 농부

습지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보세요!

쑥	선	장	람	사	르	협	약	평	겸
생	태	사	진	작	가	삼	날	사	은
밀	맛	수	질	감	시	원	도	마	머
물	어	민	통	통	마	디	래	귀	리
썰	린	습	지	환	경	운	동	가	물
물	이	지	석	경	도	룡	농	해	매
다	물	센	호	공	큰	고	니	양	새
이	자	터	농	무	메	뚜	기	학	수
버	라	교	부	원	조	류	학	자	련
수	의	사	습	지	보	전	법	백	로

찾을 단어

선장, 어민, 수질감시원, 다이버, 해양학자, 습지환경운동가,  
어린이, 수의사, 조류학자, 생태사진작가, 습지센터교사,  
환경공무원, 농부

죽령습지에서 관찰한 식물과 동물 중  
인상에 남은 친구를 그려보아요!



죽령습지에서 관찰한 식물과 동물 중  
인상에 남은 친구를 그려보아요!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프로그램

#### 천연림과 함께하는 남천계곡(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남천야영장 이용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남천야영장  
 운영내용 : 자연해설, 업사이클링, 수서생물관찰, 에코엔티어링



#### 소백산 노리뫼(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초등학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계곡  
 운영내용 : 자연해설, 안전산행 교육, 실내 인공암벽 등반체험



###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프로그램

#### 천연림과 함께하는 남천계곡(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남천야영장 이용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남천야영장  
 운영내용 : 자연해설, 업사이클링, 수서생물관찰, 에코엔티어링



#### 소백산 노리뫼(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초등학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계곡  
 운영내용 : 자연해설, 안전산행 교육, 실내 인공암벽 등반체험



**천동계곡 숲속친구들(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초등학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계곡 일원  
운영내용 : 자연해설, 자연놀이, 새둥지만들기, 팔찌만들기



**천동계곡 숲속친구들(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초등학생  
참여시간 : 2시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천동계곡 일원  
운영내용 : 자연해설, 자연놀이, 새둥지만들기, 팔찌만들기



**다자구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전 연령  
참여시간 : 1시간 40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죽령 일원  
운영내용 : 죽령옛길 역사문화해설, 습지탐방, 꽃창호만들기 체험



**다자구할머니와 떠나는 죽령옛길(환경부 인증프로그램)**

참여대상 : 전 연령  
참여시간 : 1시간 40분 내외  
운영장소 : 소백산국립공원 죽령 일원  
운영내용 : 죽령옛길 역사문화해설, 습지탐방, 꽃창호만들기 체험



예약 및 참여문의 : 인터넷 <http://reservation.knps.or.kr>  
유선전화 043-420-9201

예약 및 참여문의 : 인터넷 <http://reservation.knps.or.kr>  
유선전화 043-420-9201

